

광주·전남 터널 90% ‘재난방송 먹통’

도로 터널 270곳 DMB 92%·라디오 96% 수신 불량
철도 110곳 중 3곳만 양호...관제센터-열차 교신 불량도

광주·전남지역 터널 10곳 중 9곳 이상은 재난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재난방송 먹통 구간’인 것으로 파악됐다.

터널 붕괴를 소재로 한 영화 ‘터널’ 속 주인공이 휴대전화와 함께 차량에 설치된 라디오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던 것과 달리 광주·전남지역 터널에서 재난을 만날 경우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 꼼짝없이 세상과 단절되는 셈이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도로, 철도, 지하철 터널에서의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DMB와 라디오 수신 불량률이 각각 93.7%와 9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터널의 경우 광주 21곳, 전남 249곳 등 총 270곳 가운데 DMB는 251곳(92.2%), 라디오는 258곳(95.5%)이 수신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터널 21곳 가운데 DMB는 12곳(57.1%), 라디오는 20곳(95.2%)에서 수신 상태가 불량했다. 전남은 터널 249곳 중 DMB 수신 상태가 불량한 곳은 237곳(95.1%), 라디오 수신 상태가 불량한 곳은 238곳(95.6%)이었다.

철도 터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재난방송을 들을 수 없는 ‘난장’지역으로 파악됐다.

전라선, 호남고속선, 호남선 등 철도 터널 110곳 중 107개(97.2%) 터널은 DMB 수신이 불량했고, 105개(95.5%) 터널에서는 라디오 수신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선 터널 50곳 중 단 1곳에서만 DMB 수신 상태가 양호했고, 터널 3곳에서만 라디오 수신 상태가 양호했다.

호남고속선의 경우 터널 33곳 중 DMB와 라디오 수신이 양호했던 터널은 각각 1곳에 불과했고, 호남선은 27개 터널 가운데 단 1곳에서만 DMB와 라디오 수신이 원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 터널 대부분이 재난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먹통’ 구간으로 나타난 것이다.

철도 터널의 경우 지난 4월 22일 여수 열차 탈선사고 조사 과정에서 열차와 관제센터 간 무전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고를 부른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광주 지하철(1호선)은 19개 터널 구간 중 DMB 수신이 양호한 터널은 단 1곳에 그쳤다. 반면 라디오는 전체 19개 터널 중 15개 터널에서 수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1분 1초에 생사가 오가는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에게 전달되는 재난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면서 “순간의 잘못된 재난 정보에 300여명이 목숨을 잃었던 세월호 참사의 슬픈 기억을 잊어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률 하락

광주 72%·전남 56% 그쳐...57곳은 진입불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소방차가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는 비율이 광주의 경우 71.5%, 전남은 55.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도 광주·전남에 각각 16곳, 41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73.6%에서 71.5%(올해 7월 말 기준)로 2.1%포인트 떨어졌다.

전남은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이 지난해 말 기준 60.3%에서 55.5%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위급 시 소방서에서 출동을 요청할 경우 10분 가운데 5분은 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으로,

소방 골든타임이 5분인 것을 감안하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모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예 출동을 요청해도 도로 폭이 비좁아 소방차가 올 수 없는 지역도 있었다.

광주의 경우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등 16곳이 소방차 진입 불가능 또는 곤란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전남은 농촌·산간지역 27곳을 포함해 41개 지역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으로 파악됐다.

소방차 ‘진입 불가’는 도로 폭이 2m 이하이거나 이동할 수 없는 장애물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이다. ‘진입 곤란’ 기준은 폭이 3m 이상인 도로 가운데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에 따라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이다.

기온 ‘뚝’...당분간 찬바람

9일 광주·전남지역의 기온이 올 가을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기상청은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화순의 아침 최저기온이 9.4도까지 떨어지는 등 곡성(9.6도), 구례(9.7도), 곡성(9.8도), 장성(10.1도), 순천(10.2도), 광주(10.7도) 등 광주·전남 8개 지점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

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도 낮아졌다”며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평년(최저기온 8~15도, 최고기온 20~24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겠다”고 설명했다.

10일 새벽과 오전에는 보성·구례의 아침 최저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17~21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쌀쌀한 날씨...후한한 母女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10.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를 찾은 모녀가 찬바람 속에 서로를 껴안은 채 걷고 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4

해질녘 18:04

달출몰 14:08

달짐 11:08

감기조심하세요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주 맑은 뒤 흐림	10/20	보성	맑은 뒤 흐림	6/20
목포	맑은 뒤 흐림	11/20	순천	맑은 뒤 흐림	11/21
여수	맑은 뒤 흐림	13/19	영광	맑은 뒤 흐림	9/19
나주	맑은 뒤 흐림	8/20	진도	맑은 뒤 흐림	11/19
완도	맑은 뒤 흐림	10/20	전주	맑음	9/19
구례	맑은 뒤 흐림	6/20	군산	맑음	9/18
강진	맑은 뒤 흐림	9/21	남원	맑은 뒤 흐림	8/20
해남	맑은 뒤 흐림	8/21	흑산도	맑은 뒤 흐림	14/17
장성	맑은 뒤 흐림	8/1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2.0	북~북동 0.5~1.5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3.0	북~북동 1.0~2.5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서부	앞바다(동) 북~북동 1.0~2.5	북~북동 1.0~2.5
남부	앞바다(서) 북~북동 1.5~2.5	북~북동 1.0~2.5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04	07:47
	13:04	20:42
여수	08:51	02:56
	23:11	16:24

◇주간 날씨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2/22	12/21	12/23	11/25	11/25	15/23	13/25

전남대 총장선거 5파전...다음달 1일 선출

전남대가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5명이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후보(기호순)로는 정성창(경영학부)·윤성석(정치외교학과)·허민(지구환경과학부)·이병택(신소재공학부)·정병석(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오는 13일, 17, 18일 후보자들간 토론회를 갖고 20일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19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정책평가(20일), 정책평가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현장평가(25일)를 거쳐 오는 11월 1일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최종 선출한다.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의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후보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결정됐다.

9일 광주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제14차 지질공원위원회’를 열고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화순군, 담양군 일원에 걸쳐 있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후보지로 결정했다.

무등산권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오는 2018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지질과 지형학적인 가치,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운영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 서석대, 입석대 등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은 세계

적인 지질명소로도 손색이 없다고 봤다.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강원평화지역, 청송군, 무등산권, 임진강·한탄강 지역 등 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공원법상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는 한편 교육과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을 인증한다.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은 지난 2014년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공원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국내에선 지난 2010년 10월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EAGLEEYED

이글아이드 골프화

296g

ADD FG2

가볍다. 편하다!!

• 방수 탁월

• 접지력 우수

• 친환경 소재

• 100% 국내 자체 생산

• 철저한 사후관리

방수

친환경 식물 성분90%

www.eagleeyed.co.kr

전화 상담 032)523-4075

직영점 인천골프백화점 032)521-3075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 하시면 됩니다.

•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 하시면 보다 많은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글아이드

검색

힐진ECS http://www.hjecs.com

골프용품 전문기업

이글아이드 http://www.eagleeyed.co.kr

초경량 항공소재 골프화

인천골프백화점 http://www.icgolf.kr

인천 최대 골프종합매장